



# 정교회주보

제2514호

2025.03.02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사순절 전 주일)  
용서 주일

성 테오도토스 주교  
성 이시히오스 순교자  
(제3조 • 조과 복음 3)

##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3조 부활 찬양송 ..... 82
- 주교 찬양송 ..... 84
- 성당 찬양송
- 사순절 전 주일 시기송 ..... 220
- 사도경 : 로마 13,11~14,4 (봉) 441
- 복음경 : 마태오 6,14~21 .... 137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 사진 설명

## 거룩한 일곱 등잔(촛대)

**일**곱 등잔은 광야의 성막 지성소에서 처음으로 불이 밝혀진 후, 나중에는 솔로몬 성전에서도 사용되었다. 출애굽기에는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일곱 등잔의 모양을 계시하시고 그 구조를 자세히 설명하심을 기록하고 있다.(출애굽 25, 31~40)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교의 상징이 되었고, 오늘날에는 여섯 개의 뾰족한 다윗의 별과 함께 이스라엘 국가의 표상이 되었다.

일곱 등잔은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부터 교회에 도입되었으며, 성령의 일곱 가지 은총과 교회의 일곱 성사의 신비 그리고 완전함과 충만함을 의미한다.

일곱 등잔은 거룩한 제단 뒤쪽에 자리하며, 일곱 등잔 좌우에 놓인 두 개의 촛대와 함께 그리스도의 빛과 하느님의 지혜와 계시를 나타내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사진은 성전 연구소가 복원한 솔로몬 성전의 일곱 등잔이다.

# 은총과 축복의 시대

나창규 다니엘 대신부



오늘날 사람들은 주님의 풍성한 축복과 은총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 사실을 확인하는 사건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지 40일째 되는 날 어머니 성모 마리아와 함께 직접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 날로서, 교회에서는 이날을 큰 축일로 기념하며 경축한다.(매년 2월 2일)

성전에는 주님의 구원을 직접 보기 위해 기다리던, 나이가 많은 시메온이 있었다. 시메온은 기원전 3세기 중반에,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성서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 중의 한 분으로서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랬기에 성령께서 시메온 위에 머물러 계시면서 구세주를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마침내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려가셨을 때 시메온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두 팔에 받아 안으셨다.

주님을 품에 안으신 시메온은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은 평안히 눈감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만민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는 주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됩니다."(루카 2,29-32)라고 고백하였다.

구약시대에는 백성들이 죽음의 세계, 어둠의 세계에서 구원 없이 살고 있었으나, 예언자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여러 번 예언하고 믿고 있었기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많은 죄를 사함 받는 축복을 주셨다. "천사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뜨거운 돌을 불집게로 집어가지고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하였다. '보아라, 이제 너의 입술에 이것이 닿았으니 너의 악은 가시고 너의 죄는 사라졌다.'"(이사야 6,6-7)

시메온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느님을 찬양하며 부른 위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구세주를 직접 만나 뵈는 기쁨을 표현한 노래이다.

시메온의 노래는 저녁 만과를 드릴 때 끝부분에서 낭송되며, 성찬예배가 끝나고 감사기도를 드릴 때도 사제는 시메온의 말씀처럼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은 평안히 눈감게 되었나이다'라며 주님을 직접 뵈고 주님과 한 몸이 되게 해주신 은총에 대해 영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주님께서 성전에 입당하시던 날 시메온은 주님께서 모든 이들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평안한 쉼을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날마다 새로운 은총을 받으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빛을 깨닫게 해준 축복된 날이 주님의 입당 축일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 내 삶의 길잡이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명심해 두어라.”  
(루가 9,44)

**하**느님은 우리에게 오감(五感: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다섯 가지 감각)을 주셨는데, 거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오감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우리가 사는 세계를 향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타락한 세상처럼, 이들 감각이 언제나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들테면 우리는 가난, 편견, 비판, 불의를 ‘보지’만, 종종 그런 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우리는 손과 발로 이 세상을 ‘만지고 접촉’하지만, 우리의 환경이 오염되는 것이나 악이 세상으로 번져나가는 것에 대해선 무관심하고, 이 세상의 신성함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기 중에 퍼지는 향기로운 냄새는 ‘말지만’, 가난하고 병든 이들 곁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악취)는 싫어하고, 그들이 머무는 집이나 병원, 요양시설 근처에는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음식을 ‘맛보지만’, 과식(過食), 탐식(貪食) 등 절제 없이 먹거나 지나친 음주(飲酒)를 함으로써 음식을 낭비하여,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 당신의 말씀과 당부를 ‘듣도록’ 일깨워 주시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 우리가 해야 할 몇 가지 성찰

**우**리는 죽은 사람보다는 장례식이 더 중요하고, 사랑보다는 결혼식이 더 중요한 세상 속에 살고 있다. 영혼보다는 외모가 더 중요하고, 속에 담긴 내용을 경멸하는 그럴듯하게 포장한 문화 속에 살고 있다.

- 안토니 홉킨스(1937-, 영국의 배우)

우리는 새처럼 나는 것을 배웠고, 물고기처럼 수영하는 것을 배웠다.

하지만 형제자매들처럼 조화롭게 사는 기술은 배우지 못했다.

- 마틴 루터 킹(1929-1968, 미국의 목사)

## 좋은 조언을 하는 법

**먼**저 그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런 다음에 누군가에게 좋은 조언을 하고 싶을 때에는 먼저 그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할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먼저 당신이 그에게 보여주는 사랑을 알아챌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는 당신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해서 당신은 상대방의 영혼에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은 채 무엇인가 유익을 안겨줄 것입니다.

- 성 이삭 시리아인(7세기)

## 사순절 예배 안내

- \* 화, 목 오후 5시  
석후대와
- \* 수요일(3/5) 오후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 \* 금요일(3/7) 오후 6시  
제 1 성모 기립 찬양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

- \*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수요일 오후 5시  
금요일 오전 9시



## 알림

### ■ 주일학교 진급 및 새 학년 시작을 위한 기도식

오늘 성찬예배 후에 기도식이 거행됩니다. 부모님과 학생들, 선생님들 모두 참여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축복으로 새 학년을 잘 시작할 수 있도록 모두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참회의 만과

오늘 오후에 참회의 만과가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로 사순절을 시작하여 영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두 참례합니다.

### ■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내일(3월 3일, 정결 월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금식과 기도와 예배 참례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을 준비하는 영적 투쟁 기간이 되도록 합시다. 특히, 주중에 거행되는 예배에 많이 참례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 정교주일 성상 준비하세요

다음 주일(3월 9일)은 정교 주일로서 성상 행렬이 있습니다. 성상을 각자 준비하여 참례하도록 합시다.

## 죄를 멀리하는 방법

영성의 샘터

사람들은 아르세니오스 성인이 하느님의 권유에 따라 그토록 고요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어느 날 성인이 기도하면서 자신의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느님께 간구했다. 그러자 그에게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

“아르세니오스! 멀리하고, 침묵하고, 고요 속에 지내라. 이것이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근원이다.”

